

영접의 의미와 실제

이사야 7:14, 요한복음 4:28-34

정운돈 목사님

우리들은 세상 걱정하고 세상 먹을 것을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다른 양식이 있다고 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생명을 어떻게 살리는가?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이해할 때, 그리고 그 복음을 나의 것으로 삼고 영접할 때 이루어진다. 많은 사람들이 영접은 하는데, 의지로, 생각으로 영접은 하지만, 내 삶의 중심으로 영접을 안 한다. 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예수 믿는데 저러나. 누구를 만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더 하더라." 그러면 그렇게 대답해 준다. "예수 믿으니까 저 정도지. 안 믿었으면 더 했을 것이다." 그러니 끄덕끄덕 하더라. 우리의 인품이 그렇다. 우리가 예수 안 믿었으면 얼마나 상태가 안 좋았겠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 더 큰 은혜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란다. 그런데, 주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어마어마한 축복인데, 많은 분들이 이것을 누리지 못한다. 여러분, 예수 믿고 정말 행복한가? 응답받고 있는가? 누리고 있는가? 날마다 즐거우신가? 소리가 점점 줄어든다. (웃음) 예수님 때문에 '정말 행복한 삶이 이것이다' 하고 체면하게 되시기를 바란다.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다. 그런 분들과 약간 덜 그런 분들의 차이점이 뭐가? 나의 중심에 예수님이 영접되어 버린 것이다. 그러면 가르쳐주지 않아도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다. 그것을 성령인도라고 한다. 성령인도가 되어 버리는 것이다. 이번 캠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한다. 어려울 게 하나도 없다.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을 여러분이 모시고 다니니까 그렇다. 끌고 다니니까 그렇다.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끌고 다니려고 하니 얼마나 힘든가. 주께 맡기시기 바란다. 내 삶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라. 아직도 내가 주인이다. 그러니까 염려할 수밖에 없다. 입을 짓, 먹을 것 생각해야 하고, 사업 걱정을 해야 한다. 염려 없으면 심심하니까 남의 문제까지 가지고 와서 걱정을 한다. 갈등이 있고 그래야 혈액순환이 되는 모양이다. (웃음) 나의 존재 가치를 염려 속에서 찾는다. 마치 그런 것처럼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 기회만 되면 화를 낸다. 기다렸다는 듯이 말이다. 기회만 되면 문제를 일으키고 나의 존재를 드러낸다. 왜인가? 내가 주인이기 때문이다. 안타깝다. 예수를 믿고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의 존재가 전혀 없는 것처럼 행동할 때 얼마나 힘들겠는가. 낭비 중 최고의 낭비가 그것이다. 다 있는데 중요한 순간 안 써먹는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주님을 옆에 두고 중요할 때 써먹지 않고 갈등을 일으킨다. 지적당하고 찍히고 무시당하고 존재 가치가 없어지고 자꾸 나의 무엇을 만들어야 하고, 얼마나 피곤한 일인가. 주께 모든 것을 맡기시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주역이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한다. 너무 많이 받아서 자리도 양보하고, 너무 응답이 많아서 남을 돕고,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다.

그래서 오늘은 중요한 이 복음과 복음의 내용, 영접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한다. 찬양예배 다섯째 주를 기다리시고 너무 좋아하시더라. 찬양대 안 하고 오르간 안 하고 악기 연주 안 해도 되니까. (웃음) 누리시기를 축원한다. 이런 안식이 필요하다. 교역자들이 가끔 그러더라. 찬양하는데 안 따라한다고. 그런데 자기도 예배드릴 때 안 따라하더라. (웃음) 당신도 인도할 때 안 하시던데. 왜 앞자리 안 앉느냐 하면서 자기도 안 하던데. (웃음) 남이 찬양 부를 때 듣고 있는 게 얼마나 은혜 되는지 아는가. (웃음) 그러다가 은혜 되면 또 부르는 것이지. (웃음) 예배할 때 집중이 안 돼서, 안 될 때마다 바를 정(正)자를 썼더니 15번 했다고 하더라. 그것 할 때 집중하면 되는데. (웃음) 그래서 말했다. "집중할 게 따로 있습니까. 와서 딴 생각 하세요." (웃음) 여기 와 있는 것이 성공인 줄 믿으시기 바란다. 여러분, 인생의 성공이 무엇인가. 기준을 다른 데 두면 안 된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성공이다. 주일 예배시간을 기억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성공이다.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란다. 여러분은 성공자다. 여러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른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다. 가치는 알아야 한다.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한다. 찬양하는 것, 성경 읽는 것, 3오늘하고 집중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다. 다 하는데 안 믿어지니까 문제인 것이다. 하면 좋지만, 그것을 꼭 해야 치유가 되나. 아니다. 주님의 구원에 너무 감사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구원의 은혜의 감사 속에 하는 기도를 열출 만 해 보라. 모든 문제는 해결되고 세계는 뒤집어질 것이다. 그것을 안 하지 않다. 약간 주님 붙잡고 기도하면 참 평안이 오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일 것이다. 나와 우리와 민족과 세계를 향한 계획이 보일 것이다. 사람들이 답답해하고 힘들어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지금 일이 아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이 뭔지 모르니까 염려하고 걱정한다. 우리 차는 축구경기를 재방송만 본다. (웃음) 그게 좋은 신앙이다. 이미 결론을 안다. 여러분의 온 가족은 구원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 나라, 민족을 세계 살릴 국가로 만드실 것이다. 그 믿음 있는데 무슨 걱정이 있는가. 갈등할 것 없다. 하나님은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우리는 믿고 누리면 된다. 여러분의 자녀도 남편도, 미래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놀랍고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가 여러 종류의 구원의 길을 하는데, 한 번은 집중하는 것이 좋다.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놓으면, 거기 있는 나는 안 늙는다. 얼마나 좋은가. 모두 암송하고 남기시기 바란다. 그렇게 하면서 멀리 있는 사람에게 또 보내는 것이다. 그렇게 보냈더니 어머니도 듣고 영접하고, 동네 사람들이

다 듣고 믿고 영접했다고 한다. 사랑하는 딸이 보내온 것이니까 하루종일 들어놓고 보고 듣다 보니까, 인생 살아오면서 느꼈던 것이 하나하나 다 들리는 것이다. 그러면서 영접기도도 따라하고 그러다. "야, 이 이야기를 동네 사람들에게 다 해 줘라." 이렇게 해서 동네 사람들이 다 영접했다. 전혀 믿지 않던 할아버지도 어쩌다가 영접했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야, 내가 죽거든 너희들은 다 교회에 가라." 우리의 작은 헌신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리게 될 것을 믿는다.

1. 구원의 길 메시지

(1)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지금도 지구가 엄청난 속도로 날고 있다. 태양도 가만히 있지 않다. 태양계도 엄청난 속도로 날고 있다. 태양이 속한 은하에는 천억 개의 별이 있다. 몇 개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의미다. 그런데 이것도 엄청난 속도로 날고 있다. 이런 은하가 몇천만 개가 있다.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은 말씀 한 마디로 지으셨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계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언제인가? 이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영접할 때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시므로 모르는 것이 없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아신다. 우주 만물은 미세조정되어 있다고 한다. 우주에는 여러 가지 힘이 있는데, 그 힘이 조금만 비틀어져도 완전히 파괴된다고 한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아주 세밀하게 운행하고 계신 것이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없겠는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천하보다 소중한 존재 아닌가. 이 믿음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일을 할 수 있는 건강이 없어도, 굶어죽더라도 꿩잔다 하면서 머느리들을 제거하도록 버려졌다. 그 안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여러분의 미래, 직장,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다른 아무 것도 필요하지 않다. 오직 믿음이다. 구원도 인생도 가정생활도 오직 믿음이다. 지금 있는 모든 문제는 허상이다. 실상은 우리의 믿음, 하나님이 주신 믿음대도다. 하나님은 그대로 계신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 따라 역사하신다. 이미 여러분은 그 축복 받을 자로 예비된 것을 믿으라.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

(2)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 때 행복하도록 창조되었다. 갈등, 문제, 질병, 죽음이 없었다. 에덴동산이 어떤 곳인가? 우리의 소원, 놀고 먹는 것. (웃음) 에덴동산은 놀고 먹는 곳이다. 아무 근심 염려 죽음 갈등이 없는 곳이다. 예수님을 믿을 때 이 원래의 축복이 회복된다. 그런데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 그래서 계약을 어기고 죄에 빠져 버렸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 버리면 질서가 무너진다. 그러니까 어쩔 수없이 문제가 오게 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 다른 것 보면 안 된다. 자동차를 고쳐야 하는데 컴퓨터 매뉴얼 보고 고칠 수 없지 않다. 인간을 행복하게 하고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뿐이다. 우리의 참된 창조주요 구원자는 하나님 밖에 없다. 이것을 믿으면 된다. 언약을 따라가야 한다.

(3) 그런데 인간이 이 언약을 놓쳐 버렸다. 선악과다. 보람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이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마귀가 속였다. 그 말을 듣고 속은 인간이 너무 많다. 똑똑해서, "야, 하나님 믿지 마. 그 말 믿지 마. 교회 가지 마." 이게 멸망하는 길이다.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시기 바란다.

(4)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짓게 된 결과, 행복의 근원인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언약을 버려 버리게 된 것이다. 하나님과 인간이 그렇게 되어 버렸다. 너무 중요한 언약을 놓친 결과다. 그 결과 인간은 불행 속에 살게 되었다. 근본 문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죽음과 그 이후의 문제, 그리고 후대에게까지 오는 문제에 시달리게 되었다. 많은 유산도 못 물려주면서 계약과 저주까지 물려주면 어떻게 되겠는가. 어떤 청소년이 집에서 자살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초등학교 때부터 술 마시고, 노래방 다니고, 남자친구 만나서 돌아다니고, 마약까지 하다가, 집에서 뛰어내려서 자살했다고 한다. 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가정에 문제가 왔다. 소중한 아이였는데, 그 조상이 속아서 우상숭배하고 하나님 믿지 않았던 결과, 계약과 저주를 후대에게까지 물려주고 말았다. 여러분의 자녀가 아무리 부족해도 상관이 없다. 여러분만 믿음을 가지고 복의 근원이 되면, 여러분의 후대는 대로가 평탄하게 깔리게 될 것이요,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언약만 붙잡으면 된다.

(5) 그런데 우리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 주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요, 모든 죄를 해결하실 참 제사장이고, 사단 흑암 마귀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려고 오신 참 왕이시다. 그 세 가지 직분의 공통점은 기쁨 부음을 받은 자인데, 그것을 '그리스도'라고 부른다. 예수님이 이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다.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한 증거로 부활하셨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시고, 다시 오실 것을 또한 약속하셨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 거할 것을 준비해 놓고 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하실 것이다. 그분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여러분의 왕으로, 여러분의 그리스도로, 여러분 마음 속에 영접하시기를 축원한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예수 믿었는데도 왜 징징거리며 사는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바꾸시기 바란다. 예수님을 주인 삼아야 한다. 내 모든 문제를 주께 맡겨라. 그러면 이

문제 저 문제 다 있어도 여러분의 모습은 싱글벙글로 바뀐다. 내가 그분의 상황과 상태와 문제를 아는데, 절대 웃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닌데 웃는다. 하나님이 주신 에이레네, 살롬,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지만, 주인을 바꿔야 한다. 내 뜻, 내 계획, 내 고집이 아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방임, 방관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힘이 있기 때문에 주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것이다. 이 은혜가 필요하다. 그것을 믿으라. 그리고 평안만 누리라.

(6) 그래서 우리는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왜 중요한가? 마음이 행복하지 않고 정정대고 불신앙하고 있는데,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전도가 되겠는가. 그러니 중요한 것이다. 내가 힘들고 스트레스 받아서 한 잔 해야 풀릴 지경인데 전도가 되겠는가. 나는 고등학교 때 친하게 지냈던 중창단 친구 12명이 있었는데, 한 명만 불교신자였다. 그런데 이 친구가 서울대학에 갔는데 선배 한 명을 만났다. 밴드부에 들어갔는데 담배를 피우다가 책 뺏어버리고는, “저것 주워서 제벌이에 버려라.” 이런 게 대학생살인가 싶으니 얼마나 화낼지 드는가. 날마다 싸우노라고 학교를 10년을 다녔다. 겨우 이 친구가 졸업하고 직장에 갔는데, 부인을 잘 만나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리고 인생이 거듭났다. 그러는 가운데 과장까지 되었는데, 마침 이 회사의 회장이 오셨다. 아주 술을 좋아하는 분이였다. 술 파티를 하는데, 이 친구에게도 술을 권한 것이다. “술 한 잔 해라.” 그런데 이분이, “저는 안 마십니다.” “왜?” “교회 다닙니다.” “나는 교회 다니는 장로 친구들 많지만 잘 먹던데? 내 친구 목사도 있던데 잘만 처먹더라.” (웃음) 그때 한 친구의 말에 나는 굉장한 은혜를 받았다. “저는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믿음이 부족하니까 먹으면 안 됩니다.” 아주 지혜롭게 말했다. 진정한 고백이다. 그러는 가운데, 그 선배에게 연락이 왔다고 한다. 고민이 생겼는데 이 친구의 간증을 듣고 변화되어 버렸다고 한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다. 거듭나서 사업도 잘하고 미국에서 잘 살고 있다.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 삶의 주인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이 뒤집어지기를 축원한다.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했는데 그 역사가 체험되게 되시기를 바란다.

(7) 오늘 다시 한 번 진실하게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바란다. 나는 한 분 한 분 진실하게 물어보고 영접을 확인하고 싶다. 일일이 다 할 수 없으니, 오늘 이 시간 정말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는 영접의 기도를 같이 하게 되기를 바란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마귀의 종 노릇 하며 방황하며 살아왔습니다. 참 행복이 없이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제 마음 속에 주인으로 들어와 주세요. 저의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해 주세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제 마음 속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저를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다. 그냥 구원만 받을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새롭게 되는 전환점이 되시기를 축원한다.

2. 영접의 의미

영접보다 중요한 것은 영접의 의미를 아는 것이다.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은, 알면 알수록 달라진다. 골짜기를 동네 아저씨가 치는 것과 프로골퍼가 치는 것은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결과는 완전히 다르다. 복음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것과, 잘 모르면서 실적 쌓기 위해서 나가서 믿으라고 권유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 여러분의 진정한 고백이 되기를 바란다. 증인이 되시기를 바란다. 그러면 의미를 알아야 한다. 처음부터 모르더라도, 자꾸 듣다 보면 의미를 알게 되고, 그것이 내 것이 될 수 있다. 지금 영접의 의미와 깊이를 모르더라도, 이것이 결국 여러분에게 체험되기를 바란다.

(1)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는 놀라운 순간이 영접이다.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이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데 여러분의 속이 그렇게 좁으면 되겠는가. 그 속에 주님이 계시는데 얼마나 답답해 하시겠는가.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라. 생각과 마음을 절대적으로 넓히시길 바란다. 조금만 문제 생겨도 걸려 넘어져서 소화가 안 되는데 어떻게 세계복음화 할 수 있겠는가. 완전히 무너뜨리시길 바란다.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결국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 창세기 1:26-28이 완전히 회복되는 것을 의미한다. 창세기 3:1-6, 잃어버렸던 모든 것이 회복되는 사건이다.

(2) 창조의 능력, 생명의 능력이 회복되는 순간이다.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빛을 가지고 혼돈, 공허, 무질서를 무너뜨리셨다. 이 빛은 만물에 역사하여 만물을 창조했고, 그 안에 생명을 준 빛이다. 그 창조의 빛이 임하면 생명이 임하고, 만물이 소생하고, 우리에게 영생까지 임하게 되는 것이다. 그 빛이 내 안에 있는 것이다. 이 영생의 빛, 창조의 빛을 흑암 가득한 현장에 우리가 전해져야 되겠다. 그게 복음 증거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영접이다. 우리 권사님의 말씀이다. 빛이 들어오니 몇 개월 동안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고 하셨다. 흑암 가득하고 캄캄할 때는 안 보인다. 행복도 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도 안 보인다. 그런데 성령의 빛이 내 안에 들어 오니까 다 보이는 것이다. 아름다운 것들이 보이고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이 보인다. 그러니까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다 가지고 있는데도, 이미 있는데도, 시커먼 것만 보인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캄캄하게 보인다. 눈이 어두우면 다 시커멓게 보인다. 교회 안에 아름다운 성도, 좋은 램프들이 너무 많지만, 눈이 어두우면 이것도 저것도 마음에 다 안 든다. 그게 흑암이다.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 중심에 임하시기를 바란다.

(3) 기도 응답의 모든 조건을 갖추게 되는 사건이다. 요한복음 16:24에,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 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24시간 계속 기도해 보라. 문제 있으면 집중으로 열흘만 기도해 보라.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하루에 5분씩 세 번만 기도해 보라. 집중해서 그것을 안 하지 않나. 하루에 1분씩 세 번만 기도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평안이 쏟아질 것이다.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는데도 안 하지 않나.

(4) 영접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고백이요 선포다. 대적 앞에 사람 앞에 세상 앞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이다. 결혼할 때 고백하지 않나. 선포할 때 흑암이 꺾인다. 친구들 앞에서 어디를 가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공포하라. 흑암이 꺾여 버릴 것이다. 티를 내라는 말이 아니다. 공포해야 한다. 나는 나를 만나는 친구마다 술 담배를 다 끊었다. 끊으라고 말한 적이 없다. 기도하고 신앙의 필요성이 야기하고 하니까 알아서 다 끊었다. 여러분은 확실하게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신분을 밝히시길 바란다. 간첩인가. (웃음) 공포하라. 내 안에 확실하게 선포하라.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도 확실하게 선포할 수 있다. 내가 나 자신에게 선포하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하겠는가. 이 고백이 먼저 있기를 축원한다.

(5) 사단과의 영원한 결별이다. 우리는 과거에 사단에게 종 노릇했지만 영접 이후에 우리는 사단과의 관계를 끊게 되었고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신분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6) 창세기 3장에서 영원한 해방이다. 법적으로 원죄, 자범죄, 모든 허물과 죄에서 해방된 것을 믿으시길 바란다.

(7) 영접이란,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최고의 관심사다. 사업을 하는 사람은, 계약을 하고 도장을 찍을 때 관심이 가지 않는가. 하나님은 여러분이 영접하는 그 순간을 가장 기뻐하신다. 어떤 사람은 영접하면 하늘에서 황금 종이 울리고 잔치가 벌어진다고 이야기하더라. 우리는 천국에서 이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게 너무 가치있는 순간이다. 나는 오히려 성도들에게 신앙을 배운다.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니까 영접시켜달라고 간청하는 것을 보면 은혜를 받는다. 지난번에 영접하셨잖아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꼭 천국 가서야 하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된다. ‘저분이 진짜 구원받았구나. 진짜 천국을 믿는구나.’ 하나님의 최고 관심이 구원이요 영접임을 믿으시길 바란다.

(8) 사단이 볼 때는 절망의 순간이요 두려움의 순간이다. 우리에게 사단 결박권이 있지 않다. 자기를 결박할 수 있는 자가 하나 늘어난 것이다. 적군이 하나 더 생긴 것이다. 마귀가 벌벌 떨만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란다. “저런 인간이 교회에 가게 됐구나, 잘 됐다. 나 대신 가서 교회를 무너뜨리면 되겠네.” 마귀가 박수치는 사람이 되지 않아야 한다. “야, 저 인간 교회 가면 큰일인데. 문제 많은 저 교회를 다 행복으로, 믿음으로 바꿔 버릴 텐데. 안 되는데.” 사단이 불안해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한다. 그게 복의 근원이다.

(9)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이다. 고린도에는 어마어마한 신전이 있었는데, 바울은 “그 신전이 아무 것도 아니다. 그것보다 너희가 훨씬 중요한 성전이다(고전 3:16).” 하고 이야기해준 것이다. 세상 어떤 건물보다 중요하고 위대한 작품이 바로 여러분이다.

(10)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순간이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속에 오셨다.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순간이다. 삼위일체의 궁극적 비밀이 성취되는 순간이다.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이 아닌 영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다.

(11) 영접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너는 내 것이다’ 하고 인(印)치신 사건이다. 도장을 찍은 것이다. 성령으로 생명으로 인 치신 것을 믿는다.

(12) 하나님의 자녀 된 권세가 주어지는 순간이다. 세분중학교 앞을 지나갈 때 가끔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이 하교하는 모습을 본다. 수많은 아이들이 쏟아져나와와, 내 눈에는 겁 쪽쪽 씹고 나오는 우리 아들이 보인다. “엄마 닮아가지고 저렇게 나오네.” (웃음)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자녀에게 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란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우리는 너무나 소중한 복음을 받았다. 그런데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여러분 스스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축복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것인지를 다시 생각하며, 이 마음을 가지고 현장에 가지길 바란다. 이번 주에 전도캠프가 있는데, 겨우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증인이 되시길 바란다. 그래야 쉬워진다. 이 확신과 자신감이 있어야 말할 수 있다. 그렇게 했을 때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는 전혀 다르게 된다. 동기를 가지고, 실적 올리기 위해서, 겨우 영접시키는 수준이 아니다. 어마어마한 선물을 주는 것이다. 이 응답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줄 믿는다. 현장에서 날마다 이 소중한 복음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한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열린찬양예배를 통해서, 소중한 복음과 영접의 의미를 다시 한 번 깊이 묵상하고 나눌 수 있는 시간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소중한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연약해졌던, 전도도 하지 못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축복을 받았으니 정말로 행복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